

취업입문의 현실적 지침서

2월

11월주제
‘학 점’

‘학점’ 하면 학생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이 있다. 노 처나 미국인 교수로 우리말로 서술했으면 강의방법 역시 신 통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의 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었 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성실 하게 강의 준비하고 시험도 자 주 치렀다. 중간고사, 기말고 사는 물론 수시시험, 출결등의 비율을 정확히 하여 최종성적 을 내면 1점도 올리기나 하는 응통성(?)이 없었다. 그 당시 만 (23~4년 전)에도 대학의 평 가제도는 절대평가였으며 학점 은 A, B, C... 등으로 평가되었 다. 나는 결국 79.6점으로 C학 점을 받았다. 후

다. 우선 평가도구 자체가 타 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도구라 야 하겠다. 그렇다고 대학사회 에서 중고등학교때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측정만을 하여 논리



이 향 연
(외과대교수·간호학)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없이
정확한 학점을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적인 문장력을 기울 수 있는 기 회를 전혀 안줄수는 없는 상태 이고 보면 정확한 평가에 고심 하는 것이 교수의 일장이다. 더욱이 취업시 첨부서류에 성 적증명서가 빠진것은 거의 없 다. 사실상 성적증명서를 보는 것만이 대학생활을 얼마나 성 실하게 보냈는지를 알아보는

유일한 지침일수 밖에 없기때 문이다. 그러므로 성적은 상당히 중 요한 자료로 개인에게 남겨되 며 취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 고 있다.

그러나 나는 과거의 내정형 을 되살려 69점 79점등의 9점 단위의 점수를 주는 것을 싫어 한다. 이 성적이 시험 한 두번 으로 나오는 점수라면 다같이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 나 출결, 수시시험, 레포트,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성적 을 비율별로 환산하여 가장 정 확하고, 객관적으로 계산된 성 적이라고 생각했을때 9점단위 가 나오면 갈등을 갖게된다. 지금은 A+, B+ 등의 성적이 있 으니 여기에 집착하지 않아 도 되겠으나 과거의 습관은 쉽 게 버려지지 않는다.

이번에도 9점단위가 나오는 학생이 적기를 바라며 객관적 으며 정확한 평가 를 하기위해 노력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강 조하고 싶은 것은 학점은 단지 성실 한 탐구의 노력을 자각하는 하나의 자각제이아 하며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적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니어야 할 것이 다. 즉 좋은 학점은 자기 삶의 목표에 따라 수감선정도 하고 열심히 도서관도 다니며 성실 한 대학생활을 보냈을때 받는 결과이며 보람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역사속에서 숨쉬는 민주역량의 결집체

— 본교민주동문회에 대하여 —

양상한 가지의 나무가 푸르름 을 준비하듯이 저마다 새로운을 기대하는 때이다. 모교에서는 '91 후배들을 맞이하려는 준비가 한창이고 각 단위를 학생회도 선 거를 마쳐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에 항상 모교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동문으로서 몸담고 있는 '경희총민주동문회' (이하 민동) 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날이 더해가는 반도의 민주 화 열망에 모교가 당당한 모습을 차치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다.

남보다 더 많이 배운 특권을 역사에 대한 책임으로 새기며 이 기의 울기마를 벗어 던지려 애쓰 는 이들은 이 땅의 생명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경 회와 관련을 맺은 이들의 모임이 바로 민동이며 경희40여년 역사 속에서의 민주역량의 누적이며 경희민주역량의 총결집체이다.

다. 각 과별, 단대별 조직을 중심 으로 사회의 민주화, 모교의 민주 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회 원간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는 다 양한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신임회원 배가주간으로 졸업생을 정회원으로, 4학년 진 급생을 준회원으로 참여시키고자 한다.

자신의 작은 힘이나마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가 있다면 민동은 경희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을 것이다. 나의 참여로 인하여 작은 합들 이 모여져 거대한 파도가 되고, 그 기운이 이땅을 변화시키는 동 력이라는 사실에 젊은 양심과 젊 는 피를 던지는 이가 많길 바란 다.

이 귀 애
(동문 선무공·84)

수원동원, 절차무시한 어물쩍 선거 구성원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

얼마전 수원캠퍼스에서는 동아 리연합회장선거가 있었다. 각 동 아리당 3명씩의 대표가 나와 선 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과반수투 표에 과반수찬성이라는 당연하 되어야하는 절차가 안아는 결과 로 선거원들의 호응부족으로 과반 수가 넘지나 안넘느냐하는 문제 가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연회칙과 동연 선거시행 세칙이 잘 안맞는 상황이 생겨났다. 그것은 바로 동연회칙에는 과 반수투표에 과반수찬성이라는 함 목이 명시되어 있으나 재투표시 에는 투표율에 관계없이 최다투 표자가 된다는 사항이었다.

물론 그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및 단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작전 과반수투표에 과반수 찬 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시 하였다. 이처럼 어물쩍한 선거과정도

문제지만 보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들의 호응부족이었 다.

그러나 현상에서 나타난 사실 들을 볼때 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의 이견들은 회칙과 세칙상의 미흡한 점들을 표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 동 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이 구성 원들의 심각한 고민을 통해 재정 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인듯 싶다.

손 진 원
(원자·2)



◇고 황 골◇

대학방송연합 방송제

제2회 경인지구 대학방송연합 방송제'가 12월1일 '경인지구 대 학방송연합 '추위로 본교 크라운 관에서 열렸다.

각대학 방송실에서 각각 5명의 자음이 출품되는 이번 방송제는 작품의 내용별로 보면 현시기 정 세분석, 대학생활과 관련된 드라 마, 종합극성, 보도기획, 풍토등 이다.

물리학과 학·예술제

물리학과 학생회는 27일 오후2 시에 A·V센터에서 학술부의 연 구 발표와 예술제 활동 지지를 위한 제2회 물리학과 학·예술제 '를 개최한다.

학술제는 핵융합에 관하여'란 주제로 김한성 (물리2)발표와 피 지품의 컴퓨터 음악발표, 사회과 학부의 북한 컴퓨터 음악발표, 사회과학부의 북한 바로 알기에 대한 주민 실생활 상영이 있다. 예술제는 파노라마 공연과 함께 시낭송이 있으며 연극 '뚝 터'가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심화된 공포분위기

‘추차질서확립’이란 현수막이 134번 버스앞에도 나붙어지고, 학교앞을 폐지해 다니는 수고스 러운 어른들이 ‘질서확립’이라는 캐즈플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이쯤하여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통·탄정, 새마을 지도자, 마을유지등을 동원한 캠페인 행 령이 시야를 가리면서 오히려 더 무질서해진 느낌이다.

학교앞까지 밀려오는 이들만큼이 들을 볼때 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의 이견들은 회칙과 세칙상의 미흡한 점들을 표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 동 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이 구성 원들의 심각한 고민을 통해 재정 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인듯 싶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민중인 주주의가 이땅에 뿌리내리는 날 한층도 되지않는 그들의 파소와 독점제법들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민중의 심판을 내리리라.

결해 주지 못할망정 범죄와의 전 쟁'속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전국농민.

순수한 대중들의 장인 추수 대중제를 원천봉쇄로 도와준 사 략들에 의해 지난 20일 생명을 단축한 한시민이 있었다. 지방이 최루탄질식으로 안락하게 끝난 것이다. 분명 도와준 것이리라. 이런 잔당을 줄 수밖에 없는 정 치꾼과 가진자들은 자신의 생명 을 단속시킬 민중탄압'이라는 지위를 아직도 손에 쥐고 있다.

김 정 호
(정의·2)

경의인 테니스대회, 신방과 쌍타제

경의인 테니스대회는 오는 12월7일 체육행 사인 '경의인 테니스대회'를 가 진다. 이번 대회는 학생회 주최 가 아닌 학우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행사로서 회비는 3천 원.

또한 신방과 학생회는 오는 12 월12일 제24회 신방방송학과 쌍 타제'를 캐피탈호텔 그랜드볼룸 에서 개최한다. 동문과 재학생이 모이는 이 행사에서 서로의 친목 과 화합을 다진다고.

◇서 천 골◇

경희여성 4호 발간

제1회 총학생회(이하·총·)는 12월3일 '경희여성 4호'를 발간한 다. 1년 사업평가의 형태로 발 간되는 이번 회지는 1천부 정도 발행되며 각단대 여학생부를 통 해 배포된다.

회지발행 1주일후에 총·여직부 는 평가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 번 '경희여성'발간의의는 총·여 의 상·하반기 사업총평가와 예산 공개라고.

외대 멀티비전설치

외국어대학 학생회는 123강의 실을 개조해 만든 소극장 한 두 '리'에 지난 21일 48인치 멀티비 전과 VTR를 들여 놓았다.

울초부터 외대학생회가 학교측

에 건의해 들여놓게된 이 VTR은 학생회 홍보사업과 공연등에 사 용될 예정이다.

농학과 총회

농학과는 과학실험장비들과 90 년도 사업보고의 안전으로 오늘 오후1시 산업대학관 114호 강의 실(시청각실)에서 총회를 갖는 다.

후보자들은 지난 22일부터 총회개최전까지이며, 4학기이상 수료한자이어야 한다.

무역학과 논문모집

무역학과는 제1회 무역학과 논 문경시대회를 열고 이에 알맞은 논문을 모집한다.

원고 제출기한은 1991년 2월28 일 까지이며 시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등이며 각각 20만 원에서 5만원까지 상금이 수여된 다.

기타는문 주제를 자체한 편의 사항은 무역학과 사무실로 하면 된다

U·B·F겨울학교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U·B·F)는 긴 겨울방학을 보람 되게 보낼수 있는 '겨울학교'를 개최한다.

12월10일 개강하여 내년 2월22 일 종강하게 되는 겨울학교의 오 리엔테이션은 오는 7일이라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0331)212-5527.

소비향락적인 대학문화를 보고

캠퍼스가 살새없이 술렁이고 있다. 한참을 힘찬 선전문구나 화려한 포스터로 학내 곳곳을 수놓던 학생회 선거도 이제 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다.

그러나 매년 이때마다 으레

과다한 소식판과 형형색색의 포 스텐가 학내곳곳에 나뉘었다. 4년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 나는 선배들을 전송한다는 측면 과 그리고 과학우를끼리 친목을

무엇보다도 우선 장소선택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파나 등 이리들이 어느어호텔, 나이트 라든가 심지어 학과에서는 디· 까·통에서 환송회를 하기까지 한다.

요즘 젊은세대 즉 우리들의 말로 표현할때 더욱 황당하것은

서도 잘만하는데 우린 뭐야' 하 면서 불평을 하는 학우들도 적 지않다.

물론 1년에 한번밖에 없는 행 사이고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나 기전에 사랑하는 후배들과 회포 나 풀아보자는데 뭐 그리야안이 나고 혹자는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필자가 염려하는것은 그것이 '1년에 한두번 밖에 없 는 행사'라는 자체를 두고 이 야기하는것이 아니다.

'사치풍조'에 들른 우리사회, 물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최후의 만찬회

1년에 한번이라는 이유로 '졸업생환송회'의 장소 설정과 프로그램을 너무 방치해 두는것같다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졸업생 환 송회의 의미는 실로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요즘의 졸업생환송 회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어쨌지 아쉬운점이 많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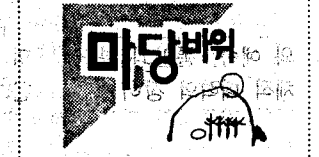
비단 졸업생환송회뿐만 아니 라 갖가지 신입생 환영회, 생일 잔치등등...

학과에서는 호텔에서 하지않고 일반디스코텍을 장소로 설정하 였다하여 참석하지 않은 학생수 가 많다고까지 한다.

그런데로 학생회관이나, 학교 앞, 중구집 등에서 환송회를 하 는 과의 학우들은 어쨌지 또 학 생회관 식당이나 밥집먹고 학교 앞 어느 술집에서 술먹다가 헤 어지겠지. 다른과는 나이트에

라고 신문에서 밤낮 떠드는 일 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 이다.

우리는 어느덧 자신이 그런 생활에 젖어들고 있으면서도 그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 며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 학생들이 오히려 그 선택(?)받은 소수 엘리트층이라는 특권을 마음껏, 미안스러운 느낌이



곽 귀 정
(생물·2)

그렇듯이 떠나가는 졸업생이 있 기 마련이고 재학생들은 아쉬움 과 기대속에서 선배를 보내고 후배를 맞는 설렘속에서 캠퍼 스는 다시 한번 술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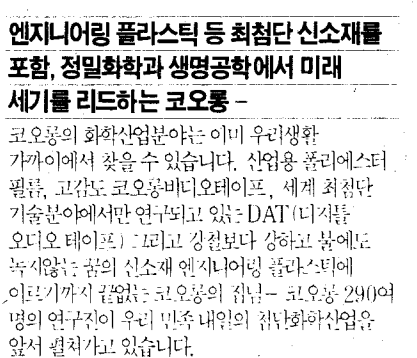
그러면서 세월이 가는것을 느 끼고 자신의 내적 성숙도를 기 하길 다시한번 되뇌곤 한다.

지금은 대부분 파마나 졸업생 환송회가 마무리된 상태이지만 얼마전 까지만해도 대학주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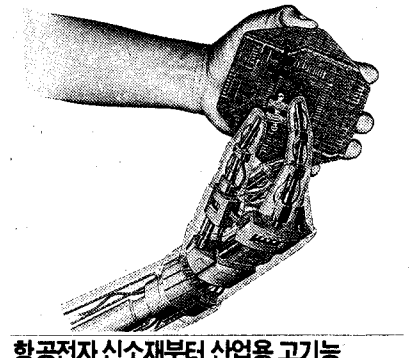
코오롱, 과연 어떤 기업인가?



광섬유와 아이라이드 섬유를 비롯한 놀라운 신소재로 우주시대의 첨단과학을 선도하는 선두주자 코오롱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최첨단 신소재를 포함, 정밀화학과 생명공학에서 미래 세기를 선도하는 코오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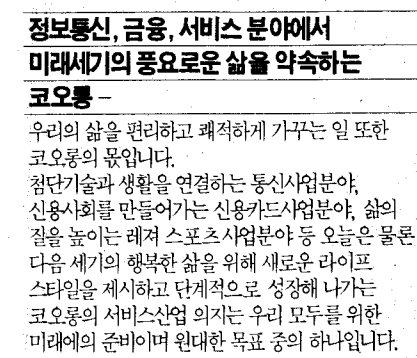
향공전자 신소재부터 산업용 고기능 로보트까지 우주시대의 첨단과학을 앞서 개척해 나가는 코오롱 -



'MADE IN KOREA'의 우수성과 코오롱의 신념으로 무역왕국 코리아의 기반을 앞서 다져나가는 코오롱 -



토목, 항만, 플랜트 및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미래도시 건설의 신공법을 앞서 개척해 나가는 코오롱 -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분야에서 미래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코오롱 -